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5. No. 2, 2004

四象人의 性格 特性에 關한 硏究
-正常 靑少年 集團을 對象으로-

황만기, 김종우, 황의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asangin
- Targeting the Group of Ordinary Adolescents -

Man-Ki Whang, Jong-Woo Kim, Ui-Wan Hwang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aims of this report are to examine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o determine the different reactions against stress by constitutions. To achieve these goals, the statistical research was adopted.

Methods : First of all, the total numbers of 398 middle school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onstitutions by QSCC II. According to each type of constitutions, both of the KPI Personality Test and Multidimensional Encountering Scale (MES) on how to deal with stress were conducted.

Summary of the findings :

1. Based on the findings assessed by the QSCC II test, the constitutional distribution reveals the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s. In Chi-square test, the girl reveals significantly high ($p<0.05$) distribution in Soyangin.

2. In Independent T-test regarding KPI personality, the girl reveals high significance ($p<0.05$) in terms of "Sociability", "Responsibility", "Synchronism" and "Self-feminity" (or Feminization) while the boy reveals high significance in "Goal-driven" ($p<0.05$).

3. In Independent T-test regarding the multidimensional encounter scaling, the girl reveals high significance ($p<0.05$) in D (expression of emotion).

4. In case of the boy, the Soeumin shows low significance ($p<0.05$) in "Leadership" and "Sociability" compared to the Taeumin or the Soyangin. On the other hand, the Soeumin reveals high significance ($p<0.05$) in "Responsibility" and "Self-control" compared to the Soyangin and additionally, shows high significance ($p<0.05$) in "Self-feminity" (or Feminization) compared to the Taeumin or the Soyangin. Furthermore, the Soyangin shows high significance ($p<0.05$) in "Self-confidence" compared to the Soeumin or the Taeumin.

5. In case of the girl, the Soyangin reveals high significance in "Sociability" and "Self-confidence" compared to the Soeumin or the Taeumin while the Soeumin has high significance in "Synchronism" compared to the Taeumin or Soyangin. On the other hand, the Soeumin has high significance in terms of "Responsibility", "Self-control", and "Self-feminity" (or Feminization) while showing low significance in "Flexibility" compared to the Soyangin.

6. For boys, the Soeumin has low significance in "Sociability" in comparison with both the Soyangin and the Taeumin, whereas for girls, the Soyangin reveals high significance in "Sociability" in comparison with both the Soeumin and the Taeumin. As per the "Self-confidence" and "Responsibility", it has been proved that there is no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boy and the girl, but to the contrary, as per the "Self-confidence", both for the girl and the boy, the Soyangin has high significance ($p<0.05$) in comparison with the Soeumin and the Taeumin.
   In addition, in "Responsibility" side, it is recognized that the Soeumin shows high significance ($p<0.05$) in comparison with the Soyangin both for boys and girls.
   Only the difference between genders, as to the "Self-confidence", is that the Soeumin shows low distribution compared to the Taeumin in the case of boys, while the Taeumin shows low distribution compared to the Soeumin in the case of girls.
   In "Self-feminity" (or Feminization), for boys the Soeumin shows high significance in comparison with both the Soeumin and the Taeumin, but to the contrary, for girls the Soeumin shows high significance ($p<0.05$) only against the Soyangin.

7. In case of boys, as to "Conformability (compromise)", the Taeumin compared to the Soeumin reveals high significance ($p<0.05$), while for girls, the Soeumin compared to the Soyangin or the Taeumin reveals high significance ($p<0.05$). Consequently, it presents that the Soyangin has a tendency not to confirm (compromise) relatively in comparison with other constitutions regardless of the genders.

Conclusions:

In general, except that it shows some constitutional deviation by genders, the statistical findings of this report agree and comply with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asangin presented by Je-Ma Lee.

Key Words:

characteristics, constitution, QSCC II, KPI Personality Test, Multidimensional Encountering Scale

교신저자 : 김종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신경정신과학교실
Tel. 02-958-9188, Fax. 02-958-9189, E-mail: aromaqi@khu.ac.kr
◆ 접수: 11 / 6 수정:11/11 채택:11/16

Ⅰ. 緖 論

성격이란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개인 내부의 정신-신체적인 체제의 역동적 조직(Personality is the dynamic organization within the individual of those psychophysical systems that determine his characteristic behavior and thought)'이라고 Allport(1961)가 정의내린 바 있다[6].

성격의 의미를 규정하는 이론가들은 대체로 성격을 첫째, 개인의 적응(adjustment)을 결정하는 측면, 즉 성격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성격이 개인의 적응 또는 적응 방식을 결정한다 함은 성격이 행동을 일으키는 직접적 요소이거나 적어도 이면적 요소(裏面的 要素)임을 시사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다른 부류의 이론가들은 성격을 인간 상태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Hall & Lindzey,1978). 이러한 관점은 성격을,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남과 구별되는 개인적 특성 나아가서는 그가 실제로 어떠하냐라는 측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성격은 실제로의 그(Personality is what a man really is.)"라는 Allport의 성격에 대한 정의가 이 점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5,6].

인간 성격에 있어서의 유형론적 입장은 기원전 4세기 무렵의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기질을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로 분류한 바 있다.

성격 유형론을 실증적인 과학으로서 정립시킨 Kretschmer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학자와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저마다 일관성 있는 성격 분류의 유형화를 시도했는데 대표적인 유형론들에서 관찰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인간은 '독자적인 전체' 로서, 그것은 보다 작은 부분으로 세분하여 분석될 수 없다. 둘째, 성격을 개개인의 특성으로 분석하여 측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셋째, 통계적인 평균이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개개의 사례 연구가 중요하며, 그와 같은 유형의 기술이 성격학의 본질적인 과제이다. 넷째, 어떤 원리나 기준에 근거하여 인간의 다양한 성격 속에 본질적이고 유형적인 것을 추출하고, 그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유형 모델을 설정한다[5].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일찍부터 인간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려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창한 四象 醫學은 인간의 생김새와 거동, 식성, 심리 상태까지도 체질적인 요인에 좌우된다고 보는 전인적인 의학 사상으로서, 체질마다 독특한 생리와 병리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질병에도 체질에 따라 다른 약물을 투여한다는 새로운 임상 운용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4,7,15].

성격 검사란 저마다 독특한 개인의 행동 및 사고 유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거나 예측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심리학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많은 검사들을 개발하여 실제 임상 장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14].

한의학계에서도 이제마의 사상 의학이 성정 표현 중심의 체질 의학이라는 관점에서 사상 체질 변증의 객관화 작업의 한 분야로 심리적 유형 분류를 통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인 QSCCⅡ를 이용해서 객관적인 체질 판별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16-21,24].

이와 같은 사상 체질 변증의 객관화 연구는 1987년 발표된 고병희의 논문[16]을 효시로 하여 꾸준히 계속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다면적 인성검사(MMPI:Mi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3]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20,32] 등과 같은 기존의 일반 심리 성격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체질별 성격 특성을 보다 구체화시키려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각 개별 체질의 진단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 성과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17,21]. 이들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저자는 경기도 지역의 남녀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QSCCⅡ[17,21]와 중고등학생용 KPI(KIRBS Personality Inventory)[14], 그리고 제어이론에 기초한 다차원적 대처 척도 검사[22,23]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의미있게 관찰되는 성격 특성 요인과 각 체질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 양식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촛점화시키지 않은 10대 초반이라는 단일한 연령 변수의 정상 학생들에게서는 어떤 답안 작성 분포상의 통계학적 특이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핌으로써 향후 청소년용 체질 문항 개발을 위한 초보적인 기초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필자는 3가지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硏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2001년 7월 9일부터 동월 20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56명과 ○○여자중학교 1학년 여학생 257명을 일차 표본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주일 동안, 개인당 2회의 정규 수업시간에 3개의 검사를 받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 응답 진행 과정 중 남녀 각각 2명이 설문 응답을 거부함으로써 이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본 연구가 체질에 따른 성격 특이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QSCCⅡ 검사에서 체질이 불분명한 집단은 다시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남자 193명과 여자 205명 총 398명이 최종 표본 집단으로 선정되었다.

2. 硏究 道具

1)四象體質分類檢査 : QSCCⅡ(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Ⅱ)

체질 유형은 1996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 교실에 의해 개발된 자기 보고식 분류 검사지를 통해 얻은 답안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만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형태학적 계측(안면부 계측이나 체간부 계측) 또는 유전적 · 생화학적인 검사 그리고 전기적 장치(DITI 또는 EAV)를 이용한 체질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표준화된 QSCCⅡ는 모두 1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3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된다.

즉 신체적 요소, 심성적 요소, 병증을 묻는 문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세분하면 사상인의 신체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정적인 관찰방법인 體形氣像과 동적인 관찰방법인 容貌詞氣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고, 심성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다시 性質才幹, 恒心, 心慾 등에 대한 질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병증에 대한 평가로는 汗, 喜溫冷, 消化狀態, 大小便, 皮膚狀態, 眼球症狀, 胸膈病症, 虛勞 등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어 진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al Discrimination

身體的 要素	體形氣像 (靜的 觀察)	1, 2, 3, 4, 5, 6번 문항
	容貌詞氣 (動的 觀察)	9, 12번 문항
心性的 要素	性質才幹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40, 41, 42,43, 44, 45, 46, 47, 61, 62, 63, 64, 65, 68, 69, 70, 72, 93, 101번 문항
	恒心	15,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6, 88, 89, 115번 문항
	心慾	13, 14, 74, 75, 76, 77, 78, 79, 80, 81, 83, 84, 85, 86, 90, 91, 92, 94, 95, 96, 97, 98, 99, 100번 문항
病症	汗	10, 106,107, 110, 120, 121번 문항
	喜溫冷	7,8번 문항
	消化狀態	102, 111, 114번 문항
	大便	103, 104, 105, 109번 문항
	小便	108번 문항
	皮膚狀態	11번 문항
	眼球症狀	117, 118번 문항
	胸膈病症	115, 119번 문항
	虛勞	112, 113, 116번 문항
動機歪曲 問項		16, 32, 39, 60, 66, 67, 73, 82, 87번 문항

2) KPI(中高等學生用) 人性 檢査

1951년 Harrison과 Gough에 의해 개발되어 전세계적으로 정상인들의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기존의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캘리포니아 심리 검사)를 1978년 한국행동과학연구소(KIRBS)가 번안하여 사용하던 중, 1993년 여태철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다시 수정·보완 후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완료한 KPI(중고등학생용) 203문항을 이번 연구에 이용하였다.

본 인성검사는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반응하게 하고 그 반응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경향을 이해하고 예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다시 말해 본 인성검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생활 장면에서의 특징과 대인관계, 문제 해결 양상을 파악하여 성격을 이해하고 예언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인성검사에서는 정신 병리적 특성을 재는 접근 방법보다는 프로파일(profile) 분석을 통해 포괄적으로 성격을 기술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Table 2.The Measured Categories under Each Lower Scale

Lower sacle		Description of measured category
Personal Relation-ship (대인관계)	Leadership (주도성)	대인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리더쉽을 발휘하기를 좋아하며 남과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
	Sociability (사교성)	사교적이고 활달하며 모임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정도
	Self-Confidence (자신감)	사회적 활동정도에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에 대해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Social Maturity (사회적 성숙도)	Responsibility (책임감)	규칙과 질서에 대해 철저하며 양심적이고 주인의식이 있어서 신뢰할만한 정도
	Self-Control (자기통제성)	자기 통제를 적절히 잘하고, 충동성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며, 규칙과 규율에 잘 동조하는 정도
	Amiability (호감성)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타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늘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 또한 자신을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보이기 위한 방향으로 응답한 경향을 알아내기 위한 타당성 척도
	Synchronism (동조성)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대한 동조의 정도를 측정하며 동시에 아무렇게나 적당히 응답한 경향을 알아내기 위한 타당성 척도로서의 역할도 한다.
Desire to achieve (성취성향)	Goal-Driven (성취욕구)	동조적, 순응적인 경향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대체로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보이는 성취욕구의 정도
Interest (흥미형태)	Flexibility (유연성)	개인의 사고와 사회적 행동의 융통성 및 순응성 정도
	Self-Feminity (여향성)	흥미의 남향성, 여향성의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적 흥미나 특성이 강하다.

3) 多次元的 對處 尺度

비슷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을 때에도 개인마다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다. 1994년 전겸구 등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적 대처척도는 대처 자원과 대처 기능 그리고 대처 양식을 세 축으로 설정하고, 종교·사회·개인적 대처 및 생리 화학적 대처 등의 수준별 대처를 고려한 3차원적 피라미드 모형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총 64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는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 조금 그렇다(1점), 상당히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등으로 정도를 표시하는 답안으로 측정되도록 고안되었다. 각 개별 하위 척도에 따른 문항 배치는 다음과 같다.

Table 3.
Factors of Multidimensional Encounter Scaling Based on the Control Theory

Scale	Related Questions
Pursuit of emotional support (정서적 지원 추구)	52, 62, 33, 10번 문항
Pursuit of problem solution support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	42, 13, 55, 28번 문항
Pursuit of religion(종교적 추구)	63, 38, 23, 53, 11번 문항
Expression of emotion (정서 표출)	25, 14, 2, 40, 54번 문항
Conformability(Compromise) (동화(양보))	34, 59, 8, 48, 20번 문항
Positive forgetfulness (적극적 망각)	41, 27, 56,3,16번 문항
Emotional calm (정서적 진정)	50, 36, 21, 9번 문항
Self-criticism (자기 비판)	37,51,22, 61번 문항
Obstinacy (고집)	30,17, 45, 57, 5번 문항
Affirmative comparison (긍정적 비교)	32, 7, 58, 47번 문항
Affirmative analysis (긍정적 해석)	18,6, 31,46번 문항
Positive encounter (적극적 대처)	1, 39, 12, 24번 문항
Abandonment (체념)	35, 60, 49번 문항
Self-control (자제)	15, 4, 44번 문항
Passive withdrawal (소극적 철수)	64, 29, 43번 문항

3. 分析 方法

체질과 성별 분포, 그리고 체질과 KPI/다차원적 대처 척도 사이의 문항 상관성을 Chi-square test로 검증하였고, 성별에 따른 KPI/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비교는 일원 분산 분석을 이용하였고 Duncan Procedure를 이용하여 사후 검증하였으며, KPI와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성별 분포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모두 SPSS 10.0 for WIN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p<0.05$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Ⅲ. 硏究 結果

1. 性別에 따른 體質 分布

남녀의 체질 분포를 보면 소양인들이 남녀 공히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Table 4.
Constitutional Distribution by Genders

		Constitution		
		Soeumin	Soyangin	Taeumin
Sex	Male	51(26.5%)	85(44.0%)	57(29.5%)
	Female	50(24.4%)	116(56.6%)	39(19.0%)

All values are verified with chi-square.

2. 性別에 따른 KPI의 差異

여학생들이 '사교성' '책임감' '동조성' '여향성' 항목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답안 작성율을 보였으며,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성취 욕구' 항목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5. The Difference Based on KPI between Genders

	Mean±S.E				
	Leadership	Sociability	Self-Confidence	Responsibility	Self-Control
Male N=193	9.24±0.26	8.30±0.25	6.20±0.20	7.73±0.16	13.94±0.36
Female N=205	9.39±0.26	9.59±0.25	6.46±0.19	8.48±0.16	13.82±0.36
P Value	0.242	0.0112*	0.923	0.007*	0.466

	Mean±S.E				
	Amiability	Synchronism	Goal-Driven	Flexibility	Self-Feminity
Male N=193	10.27±0.25	7.70±0.13	5.61±0.15	7.12±0.18	9.30±0.18
Female N=205	10.25±0.24	8.09±0.11	5.41±0.14	7.30±0.18	12.14±0.16
P Value	0.177	0.031*	0.032*	0.480	0.000*

* P < .05
Difference between means are assessed by t-test.

3. 性別에 따른 스트레스 對處의 差異

D(정서 표출) 척도에서만 여학생들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6. The Difference of Encountering Stress by Genders

	Mean±S.E				
	A	B	C	D	E
Male N=193	2.21±0.05	2.20±0.05	1.74±0.05	2.09±0.05	2.06±0.03
Female N=205	2.34±0.05	2.19±0.05	1.82±0.06	2.25±0.05	2.04±0.03
P Value	0.060	0.820	0.222	0.011	0.615

	Mean±S.E				
	F	G	H	I	J
Male N=193	2.39±0.05	2.73±0.05	2.25±0.05	2.07±0.04	2.19±0.04
Female N=205	2.47±0.04	2.76±0.05	2.25±0.05	1.99±0.03	2.09±0.04
P Value	0.267	0.884	0.919	0.329	0.264

	Mean±S.E				
	K	L	M	N	O
Male N=193	2.44±0.05	2.42±0.04	2.01±0.05	2.17±0.04	1.70±0.03
Female N=205	2.56±0.05	2.38±0.04	1.91±0.05	2.05±0.04	1.64±0.04
P Value	0.180	0.307	0.272	0.156	0.474

A: 정서적 지원 추구 B: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 C: 종교적 추구 D: 정서 표출 E: 동화(양보)
F: 적극적 망각 G: 정서적 진정 H: 자기 비판 I: 고집 J: 긍정적 비교
K: 긍정적 해석 L: 적극적 대처 M: 체념 N: 자제 O: 소극적 철수
ll values are Mean±S.E.

4. 스트레스 對處 尺度間 相關性

모든 항목에서 각각 유의미한 상관성이 인정되었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Stress Scales Ranging from A to O
(P.C : Pearson Correlation, Sig. : Sig.(2-Tailed) N=398)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	P.C														
	Sig.														
B	P.C	.696**													
	Sig.	.000													
C	P.C	.261**	.201**												
	Sig.	.000	.000												
D	P.C	.162**	.218**	.078											
	Sig.	.001	.000	.122											
E	P.C	.251**	.233**	.184**	.033										
	Sig.	.000	.000	.000	.513										
F	P.C	.417**	.374**	.156**	.142**	.316**									
	Sig.	.000	.000	.002	.005	.000									
G	P.C	.441**	.379**	.211**	.050	.360**	.564**								
	Sig.	.000	.000	.000	.316	.000	.000								
H	P.C	.355**	.334**	.267**	.150**	.448**	.358**	.475**							
	Sig.	.000	.000	.000	.003	.000	.000	.000							
I	P.C	.160**	.255**	.090	.163**	.330**	.303**	.312**	.362**						
	Sig.	.001	.000	.072	.001	.000	.000	.000	.000						
J	P.C	.311**	.206**	.133**	.211**	.314**	.263**	.288**	.339**	.294**					
	Sig.	.000	.000	.008	.000	.000	.000	.000	.000	.000					
K	P.C	.310**	.263**	.185**	.021	.370**	.399**	.581**	.417**	.364**	.310**				
	Sig.	.000	.000	.000	.674	.000	.000	.000	.000	.000	.000				
L	P.C	.315**	.352**	.198**	.178**	.245**	.221**	.466**	.412**	.322**	.133**	.482**			
	Si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000			
M	P.C	.232**	.234**	.136**	.202**	.483**	.345**	.326**	.448**	.346**	.384**	.250**	.192**		
	Sig.	.000	.000	.00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P.C	.208**	.229**	.025	.205**	.270**	.418**	.310**	.294**	.376**	.253**	.308**	.229**	.323**	
	Sig.	.000	.000	.62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O	P.C	.180**	.242**	.038	.214**	.186**	.324**	.123*	.196**	.220**	.255**	.069	-.088	.304**	.266**
	Sig.	.000	.000	.449	.000	.000	.000	.014	.000	.000	.000	.172	.081	.000	.000

A: 정서적 지원 추구 B: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 C: 종교적 추구
D: 정서 표출 E: 동화(양보) F: 적극적 망각
G: 정서적 진정 H: 자기 비판 I: 고집
J: 긍정적 비교 K: 긍정적 해석 L: 적극적 대처
M: 체념 N: 자제 O: 소극적 철수

* p<.05 (2-tailed) **p<.01 (2-tailed)

5. KPI 尺度間 相關性

'주도성' 항목은 '사교성' '자신감' '동조성' '성취 욕구'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으며 '자기 통제' '유연성' '여향성' 항목과는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사교성' 항목은 '주도성' '자신감' '호감성' '동조성' '성취 욕구'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으며 '책임감' '자기 통제' '호감성' '유연성' '여향성' 항목과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책임감' 항목은 '자기 통제' '호감성' '동조성' '성취 욕구' '여향성'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고, '자신감' '유연성' 항목과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자기 통제' 항목은 '책임감' '호감성' '동조성' '성취 욕구' '여향성'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고, '주도성' '자신감' 항목과는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호감성' 항목은 '사교성' '책임감' '자기 통제' '동조성' '성취 욕구' '여향성'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고, '자신감' 항목과만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동조성' 항목은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자기 통제' '호감성' '성취 욕구' '여향성'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고, '유연성' 항목하고는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성취 욕구' 항목은 '주도성' '사교성' '자신감' '책임감' '자기 통제' '호감성' '동조성' '여향성' 과 상관 관계에 있고, 유의미한 역상관 관계에 있는 항목은 없었다. '유연성' 항목은 유의미한 상관 관계에 있는 항목은 없었으며, '주도성' '자신감' '책임감' '동조성' 항목들과는 역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여향성' 항목은 '책임감' '자기 통제' '호감성' '동조성' '성취 욕구'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고, '주도성' '자신감' 항목과는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Table 8. Correlation between Scales of KPI (P.C : Pearson Correlation, Sig. : Sig.(2-Tailed), N=398)

		주도성	사교성	자신감	책임감	자기통제	호감성	동조성	성취욕구	유연성
주도성	P.C									
	Sig.									
사교성	P.C	.682**								
	Sig.	.000								
자신감	P.C	.745**	.729**							
	Sig.	.000	.000							
책임감	P.C	.055	.076	-.144**						
	Sig.	.270	.131	.004						
자기통제	P.C	-.146**	-.095	-.358**	.519**					
	Sig.	.004	.058	.000	.000					
호감성	P.C	.034	.148**	-.147**	.480**	.752**				
	Sig.	.498	.003	.003	.000	.000				
동조성	P.C	.205**	.196**	.073	.371**	.145**	.216**			
	Sig.	.000	.000	.146	.000	.004	.000			
성취욕구	P.C	.335**	.416**	.185**	.372**	.524**	.501**	.273**		
	Si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유연성	P.C	-.193**	-.043	-.125*	-.137**	.032	-.069	-.159**	.016	
	Sig.	.000	.390	.013	.006	.525	.171	.001	.744	
여향성	P.C	-.230**	-.096	-.319**	.354**	.396**	.228**	.144**	.109*	.026
	Sig.	.000	.056	.000	.000	.000	.000	.004	.030	.611

* p<.05 (2-tailed) **p<.01 (2-tailed)

6. 男子의 體質別 KPI의 差異

남자 少陰人은 남자 太陰人이나 남자 少陽人에 비해 '주도성' 과 '사교성' 이 유의하게 낮았고, 남자 소양인은 남자 소음인이나 남자 태음인에 비해 '자신감' 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남자 소음인이 남자 소양인에 비해 '책임감' 과 '자기 통제' 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남자 소음인이 남자 태음인이나 남자 소양인에 비해 여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9. The Difference Based on KPI among Constitutions for Boys

	Mean±S.E				
	Leadership	Sociability	Self-Confidence	Responsibility	Self-Control
Soeumin N=51	8.08±0.56	7.02±0.55	5.18±0.37	8.16±0.30	15.08±0.63
Soyangin N=85	9.84±0.39	9.06±0.34	6.95±0.29	7.27±0.25	13.13±0.59
Taeumin N=57	9.40±0.44	8.32±0.43	5.98±0.35	8.04±0.28	14.14±0.60
P Value	0.027	0.004	0.001	0.041	0.087
Duncan	Se<Te,Sy	Se<Te,Sy	Se,Te<Sy	Sy<Se	Sy<Se

	Mean±S.E				
	Amiability	Synchronism	Goal-Driven	Flexibility	Self-Feminity
Soeumin N=51	10.57±0.44	7.61±0.27	5.51±0.31	6.73±0.38	10.06±0.35
Soyangin N=85	10.01±0.41	7.71±0.19	5.54±0.22	7.53±0.28	9.14±0.27
Taeumin N=57	10.39±0.43	7.77±0.25	5.81±0.27	6.88±0.32	8.84±0.31
P Value	0.640	0.901	0.702	0.151	0.031
Duncan					Te,Sy<Se

7. 男子의 體質別 스트레스 對處의 差異

`'동화(양보)' '고집' 항목에서 체질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태음인이 남자 소양인에 비해 '동화(양보)'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으며 또 남자 소음인이 남자 소양인에 비해 '고집'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0. The Difference of Encountering Stress among Constitutions for Boys

	Mean±S.E				
	A	B	C	D	E
Soeumin N=51	2.22±0.11	2.22±0.11	1.79±0.11	1.97±0.09	2.04±0.06
Soyangin N=85	2.24±0.08	2.21±0.08	1.71±0.08	2.22±0.08	1.98±0.05
Taeumin N=57	2.15±0.11	2.18±0.11	1.74±0.11	1.99±0.08	2.21±0.07
P Value	0.793	0.963	0.850	0.085	0.036
Duncan					Sy<Te

	Mean±S.E				
	F	G	H	I	J
Soeumin N=51	2.36±0.09	2.68±0.09	2.29±0.11	2.23±0.09	2.22±0.07
Soyangin N=85	2.40±0.08	2.71±0.08	2.23±0.09	1.93±0.06	2.14±0.07
Taeumin N=57	2.41±0.09	2.80±0.09	2.25±0.09	2.14±0.09	2.25±0.07
P Value	0.911	0.649	0.910	0.026	0.577
Duncan				Sy<Se	

	Mean±S.E				
	K	L	M	N	O
Soeumin N=51	2.38±0.09	2.39±0.09	1.96±0.09	2.22±0.09	1.79±0.07
Soyangin N=85	2.41±0.07	2.40±0.06	1.99±0.09	2.12±0.07	1.71±0.05
Taeumin N=57	2.53±0.09	2.48±0.06	2.09±0.11	2.21±0.08	1.60±0.07
P Value	0.498	0.704	0.695	0.632	0.173
Duncan					

A: 정서적 지원 추구 B: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 C: 종교적 추구
D: 정서 표출 E: 동화(양보) F: 적극적 망각
G: 정서적 진정 H: 자기 비판 I: 고집
J: 긍정적 비교 K: 긍정적 해석 L: 적극적 대처
M: 체념 N: 자제 O: 소극적 철수

8. 女子의 體質別 KPI의 差異

여자 소양인은 여자 소음인이나 여자 태음인에 비해 '사교성' 과 '자신감'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여자 소음인은 여자 태음인이나 여자 소양인에 비해 '동조성'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 소음인이 여자 소양인에 비해 '책임감' '자기 통제' '여향성' 이 유의하게 높고, '유연성' 면에서는 여자 소양인이 여자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를 얻었다.

Table 11. The Difference Based on KPI among Constitutions for Girls

	Mean±S.E				
	Leadership	Sociability	Self-Confidence	Responsibility	Self-Control
Soeumin N=50	9.08±0.50	8.60±0.49	5.96±0.38	9.30±0.29	15.36±0.65
Soyangin N=116	9.75±0.34	10.29±0.32	7.00±0.25	8.03±0.75	12.86±0.51
Taeumin N=39	8.69±0.68	8.74±0.61	5.49±0.46	8.77±0.33	14.72±0.74
P Value	0.261	0.006	0.005	0.004	0.010
Duncan		Se,Te<Sy	Te,Se<Sy	Sy<Se	Sy<Se

	Mean±S.E				
	Amiability	Synchronism	Goal-Driven	Flexibility	Self-Feminity
Soeumin N=50	10.76±0.48	8.66±0.16	5.78±0.29	6.26±0.39	12.74±0.29
Soyangin N=116	9.93±0.32	7.94±0.15	5.25±0.18	7.78±0.23	11.80±0.23
Taeumin N=39	10.56±0.56	7.80±0.29	5.44±0.32	7.18±0.42	12.38±0.36
P Value	0.311	0.016	0.302	0.004	0.050
Duncan		Te,Sy<Se		Se<Sy	Sy<Se

9. 女子 體質別 스트레스 對處의 差異

'정서 표출' '동화(양보)' '고집' 항목에서 체질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 소음인은 여자 태음인이나 여자 소양인에 비해 정서 표출적 성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소음인은 동화(양보)하는 경향이 여자 소양인이나 여자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여자 태음인이 여자 소양인에 비해 '고집'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Table 12. The Difference of Encountering Stress among Constitutions for Girls

	Mean±S.E				
	A	B	C	D	E
Soeumin N=50	2.40±0.11	2.23±0.10	1.94±0.13	1.99±0.09	2.22±0.08
Soyangin N=116	2.33±0.07	2.20±0.06	1.79±0.08	2.34±0.06	1.98±0.04
Taeumin N=39	2.29±0.13	2.14±0.10	1.72±0.13	2.31±0.14	2.01±0.08
P Value	0.821	0.858	0.486	0.022	0.028
Duncan				Se<Te,Sy	Sy,Te<Se

	Mean±S.E				
	F	G	H	I	J
Soeumin N=50	2.39±0.09	2.89±0.11	2.26±0.10	2.03±0.07	2.13±0.09
Soyangin N=116	2.47±0.06	2.68±0.06	2.26±0.07	1.91±0.05	2.09±0.05
Taeumin N=39	2.59±0.11	2.82±0.11	2.25±0.10	2.16±0.08	2.03±0.09
P Value	0.386	0.196	0.999	0.042	0.776
Duncan				Sy<Te	

	Mean±S.E				
	K	L	M	N	O
Soeumin N=50	2.58±0.09	2.53±0.08	1.99±0.10	2.03±0.07	1.56±0.07
Soyangin N=116	2.56±0.06	2.31±0.05	1.87±0.07	1.99±0.05	1.69±0.05
Taeumin N=39	2.53±0.12	2.36±0.11	1.91±0.10	2.22±0.01	1.61±0.09
P Value	0.951	0.133	0.621	0.125	0.421
Duncan					

A: 정서적 지원 추구 B: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 C: 종교적 추구
D: 정서 표출 E: 동화(양보 F: 적극적 망각
G: 정서적 진정 H: 자기 비판 I: 고집
J: 긍정적 비교 K: 긍정적 해석 L: 적극적 대처
M: 체념 N: 자제 O: 소극적 철수

Ⅳ. 考 察

東武 李濟馬는 그의 일생을 통하여 '四象'으로 귀결되어지는 四元 構造의 인식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의학에 적용하여 사람을 太少陰陽의 네 체질로 나누어 임상에 응용하였다. 사람마다 각각의 性情上의 偏差로 인하여 臟局의 大小 偏差가 나타나며, 이는 '性質材幹' '恒心' '心慾' '體形氣像' '容貌詞氣' '體質素症' 및 '體質病症'에서의 체질적 차등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체질 감별의 기준들이 되며 이는 동무의 저서인 <東醫壽世保元>,<格致藁>,<東武遺稿> 등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지고 있다[4,7].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중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하여 QSCCⅡ, KPI(중고등학생용) 인성검사, 그리고 다차원적 대처 척도라는 3가지 심리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제마가 제시한 사상인의 성격적 편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용 체질 판별 문항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기획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자와 여자는 성비 분포상의 체질적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에게서 소양인의 분포가 Chi-square test 상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전통적 사회 통념과는 상충되는 결과로서, 연령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QSCCⅡ의 단어 개념들을 자기 자신에게 올바로 적용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같은 나이의 남학생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여학생들에게서 청소년의 발양(發揚)적인 특징이 미리 반영되어 드러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KPI인성 검사에 대한 남녀별 Independent T-test 에서는 여학생들이 '사교성', '책임감', '동조성', '여향성' 항목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은 답안 작성율을 보였으며,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성취 욕구' 항목에서만 유의하게($p<0.05$)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다차원적 대처 척도에 대한 남녀별 Independent T-test 에서는 D(정서 표출) 척도에서 여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으며 A(정서적 지원 추구) 척도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은 경향성이 인정되었다. 이 결과들은 성인들의 인간 관계에서 흔히 보이고 있는 여성의 관계 지향적 성향과 남자의 성취 지향적 성향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A(정서적 지원 추구)에서부터 O(소극적 철수)까지의 15개 항목간의 상

관성을 체질이 명확히 구분된 398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들 사이에 각각 유의미한($p<0.05$) 상관성이 인정된 결과를 얻었다. KPI의 '주도성' 부터 '여향성' 까지의 10개 항목들 사이의 척도간 상관성은 체질이 명확히 구분된 398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주도성' 항목은 '사교성', '자신감', '동조성', '성취 욕구'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으며 '자기 통제', '유연성', '여향성' 항목과는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사교성' 항목은 '주도성', '자신감', '호감성', '동조성', '성취 욕구'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으며 '책임감', '자기 통제', '호감성', '유연성', '여향성' 항목과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책임감' 항목은 '자기 통제', '호감성', '동조성', '성취 욕구', '여향성'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고, '자신감', '유연성' 항목과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자기 통제' 항목은 '책임감', '호감성', '동조성', '성취 욕구', '여향성'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고, '주도성', '자신감' 항목과는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호감성' 항목은 '사교성', '책임감', '자기 통제', '동조성', '성취 욕구', '여향성'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고, '자신감' 항목과만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동조성' 항목은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자기 통제', '호감성', '성취 욕구', '여향성'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고, '유연성' 항목과는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성취 욕구' 항목은 '주도성', '사교성', '자신감', '책임감', '자기 통제', '호감성', '동조성', '여향성' 과 상관 관계에 있고, 유의미한 역상관 관계에 있는 항목은 없었다. '유연성' 항목은 유의미한 상관 관계에 있는 항목은 없었으며, '주도성', '자신감', '책임감', '동조성' 항목들과는 역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여향성' 항목은 '책임감', '자기 통제', '호감성', '동조성', '성취 욕구' 항목과 상관 관계에 있고, '주도성', '자신감' 항목과는 역상관 관계에 있었다.

체질이 명확히 판별된 남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하여 KPI검사의 10개 항목에 대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도성', '사교성', '자신감', '책임감', '여향성' 항목에서 체질별로 유의한($p<0.05$)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소음인은 남자 태음인이나 남자 소양인에 비해 '주도성' 과 '사교성' 이 유의하게($p<0.05$) 낮았고, 남자 소양인은 남자 소음인이나 남자 태음인에 비해 '자신감' 이 유의하게($p<0.05$) 높았으며, 남자 소음인이 남자 소양인에 비해 '책임감' 과 '자기 통제' 가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남자 소음인이 남자 태음인이나 남자 소양인에 비해 '여향성' 이 유의하게($p<0.05$) 높았다.

또 체질이 명확히 판별된 여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하여 KPI검사의 10개 항목에 대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교성', '자신감', '책임감', '자기 통제', '동조성', '유연성', '여향성' 항목에서 체질에 따른 유의한($p<0.05$) 차이를 보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여자 소양인은 여자 소음인이나 여자 태음인에 비해 '사교성' 과 '자신감' 이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고, 여자 소음인은 여자 태음인이나 여자 소양인에 비해 '동조성' 이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 소음인이 여자 소양인에 비해 '책임감', '자기 통제', '여향성' 이 유의하게($p<0.05$) 높고, '유연성' 면에서는 여자 소양인이 여자 소음인보다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난 결과를 얻었다. 남녀 공통으로 유의한($p<0.05$) 체질적 편차를 보인 항목은 '사교성', '자신감', '책임감', '여향성' 이었는데, 이를 항목에 따라 남녀별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남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소양인이나 태음인 모두에 대해 '사교성' 이 유의하게($p<0.05$) 낮은 경향이 나타났지만 여자의 경우는 소양인이 소음인이나 태음인 모두에 대해 '사교성' 이 유의하게($p<0.05$) 높은 경향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여자 태음인은 사교성이 높지 않지만 남자 태음인은 사교성이 낮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는 남자들의 일반적인 양적 성향이 음인에게서도 어느 정도 발현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또한 이 결과는 <東醫壽世保元>의 '擴充論'에서 이제마가 제시한 체질에 따른 인간 관계에서의 장단 양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 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 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 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자신감'과 '책임감' 항목에 있어서는 남녀의 체질적 차이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자신감' 항목에서는 남녀 모두에게서 소양인이 소음인이나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또 '책임감' 항목에서도 남녀 모두에게서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은 경향성이 인정되었다. 이 결과 역시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 辨證論'에서 이제마가 제시한 체질에 따른 性質才幹의 특징적 양상과 상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少陽人 性質 長於剛武而 材幹 能於事務.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而 材幹 能於居處.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 材幹 能於黨與). 다만 '자신감' 항목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해 더 낮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더 낮은 분포를 보인 차이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여향성' 항목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 모두에 대해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대해서만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東醫壽世保元>의 '擴充論'에서 제시된 소음인의 여성적 경향성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 不欲爲雄). 또 이는 남자 태음인들의 여향성이 여자 태음인들의 여향성보다는 높지 않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성차에 따른 당연하게 예상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언급하자면, 남자에서는 '주도성'이 여자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유의한 체질적 차이를 보인 항목이었고, 여자에서는 '자기 통제', '동조성', '유연성'이 남자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유의한 체질적 차이를 보인 항목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향후 청소년용 체질 판별 문항 개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체질 감별용 특이 문항 설정 작업에 상기의 결과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체질이 명확히 판별된 남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15개 항목에 대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 '동화(양보)', '고집' 항목에서 체질에 따른 유의한(p<0.05)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태음인이 남자 소양인에 비해 '동화(양보)'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높으며 또 남자 소음인이 남자 소양인에 비해 '고집'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높았다. 또한 남자 소양인이 남자 소음인이나 남자 태음인에 비해 '정서 표출'을 잘하는 경향이 인정되었다.

또 체질이 명확히 판별된 여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15개 항목에 대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정서 표출', '동화(양보)', '고집' 항목에서 체질에 따른 유의한(p<0.05)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자 소음인은 여자 태음인이나 여자 소양인에 비해 정서 표출적 성향이 유의하게(p<0.05) 낮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소음인은 동화(양보)하는 경향이 여자 소양인이나 여자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여자 태음인이 여자 소양인에 비해 '고집'하는 경향이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남녀 공통으로 유의한(p<0.05) 체질적 편차를 보인 항목은 '동화(양보)' 와 '고집'이었는데, 이를 항목에 따라 남녀별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남자의 경우는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동화(양보)'하는 경향이 유의하게(p<0.05) 높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소양인이나 태음인에 비해 '동화(양보)'하는 경향이 유의하게(p<0.05) 높았다. 결국 소양인은 남녀 구별 없이 동화(양보)하는 경향이 다른 체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소양인의 성향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少陽之情氣 恒欲外勝).

또 '고집' 항목에서는 남자의 경우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양인은 남녀 구분 없이 음인들에 비해 고집스러운 경향이 덜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일반적인 소양인의 정기 특징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不欲內守). 상기 결과는 예를 들어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소양인들은 군중 심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쉽게 접지 않는 독자성이 강한 반면에 의외로 비합리적인 옹고집은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 여자에게서만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는 항목인 '정서 표출'을 보면 상기한 바대로 여자 소음인들은 여자 태음인이나 여자 소양인들에 비해 유의하게($p<0.05$) 낮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남녀별 Independent T-test에서의 결과와 비교해서 정리해 보자면, 비록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서 표출'에 능하지만 여자 소음인의 경우에서는 '정서 표출'에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자 소음인 일반'과 '남자 일반'과의 성별과 체질적 차이에 따른 구체적인 비교 고찰이 향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필자는 3가지 성격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사상인의 성격 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들 상호간의 상관 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들간의 관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체질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있는 문항들이 몇 가지 관찰되었지만, 이 결과만으로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통해서 확정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추후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체질 판별에 있어서 자기 보고식 설문 방식만을 가지고 접근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좀더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체질이 선명하게 구분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Ⅴ. 結 論

남녀 중학생 398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상인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가지의 자기 보고식 성격 검사 도구(QSCCⅡ, KPI, 다차원적 대처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QSCCⅡ를 이용하여 체질을 판별한 결과, 남녀에 따른 성비 분포상의 체질적 차이가 드러났는데 여자에게서 소양인 분포가 Chi-square test상 유의하게($p<0.05$) 높았다.

2. 남자 소음인은 남자 태음인이나 남자 소양인에 비해 '주도성'과 '사교성'이 유의하게($p<0.05$) 낮았고, 남자 소양인은 남자 소음인이나 남자 태음인에 비해 '자신감'이 유의하게($p<0.05$) 높았으며, 남자 소음인이 남자 소양인에 비해 '책임감'과 '자기 통제'가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남자 소음인이 남자 태음인이나 남자 소양인에 비해 여향성이 유의하게($p<0.05$) 높았다.

3. 여자 소양인은 여자 소음인이나 여자 태음인에 비해 '사교성'과 '자신감'이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고, 여자 소음인은 여자 태음인이나 여자 소양인에 비해 '동조성'이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 소음인이 여자 소양인에 비해 '책임감', '자기 통제', '여향성'이 유의하게($p<0.05$) 높고, '유연성' 면에서는 여자 소양인이 여자 소음인보다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난 결과를 얻었다.

4. 남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소양인이나 태음인 모두에 대해 '사교성'이 유의하게($p<0.05$) 낮은 경향이 나타났지만 여자의 경우는 소양인이 소음인이나 태음인 모두에 대해 '사교성'이 유의하게($p<0.05$) 높은 경향으로 파악되었다. '자신감'과 '책임감' 항목에 있어서는 남녀의 체질적 차이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자신감' 항목에서는 남녀 모두에게서 소양인이 소음

인이나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또 '책임감' 항목에서도 남녀 모두에게서 소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p<0.05$) 높은 경향성이 인정되었다. 다만 '자신감' 항목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해 더 낮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더 낮은 분포를 보인 차이만이 드러났다. '여향성' 항목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 모두에 대해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소양인에 대해서만 유의하게($p<0.05$) 높게 나타났다.

5. 남자의 경우는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동화(양보)'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p<0.05$) 높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소양인이나 태음인에 비해 '동화(양보)'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p<0.05$) 높았다. 결국 소양인은 남녀 구별 없이 동화(양보)하는 경향이 다른 체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參 考 文 獻

1.고려대학교 부설 행동 과학 연구소:심리척도핸드북Ⅰ, 서울, 학지사, 33-271, 2001.
2.김문수, 문양호, 박소현, 박순권, 박정현 공역:생물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409-436, 1999.
3.김중술:다면적 인성 검사(MMPI의 임상적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30, 125-179, 2001.
4.김형태 역:동의수세보원강의, 서울, 도서출판 정담, 33-155, 1999.
5.박아청:성격 심리학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34-92, 2001.
6.안범희:성격 심리학, 서울, 하우, 1-15, 2001.
7.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20-124, 1997.
8.조긍호:유학심리학, 서울, 나남출판, 27-72, 1998.
9.조수철:소아정신질환의 개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21, 2000.
10.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긍호, 이수원:동양심리학, 서울, 지식산업사, 163-285, 377-472, 1999.
11.최영주 역:실험 심리학, 서울, 성원사, 279-308, 1993.
12.한국 심리학회 학술 위원회 편:심리학에서의 비교 문화 연구, 서울, 성원사, 431-503, 1997.
13.한국행동과학연구소:대학생용 KPI 성격 검사 요강,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13, 2000.
14.한국행동과학연구소:KPDI MANUAL(성격진단검사요강),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14, 1995.
15.황의완, 김지혁:동의정신의학, 서울, 현대의학서적사, 111-156, 1987.
16.고병희, 송일병:사상 체질 변증 방법론 연구(제 2보), 대한한의학회지, 8(1):139-160, 1987.
17.김선호, 고병희, 송일병:사상 체질 분류 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61-80, 1993.
18.김선호, 고병희, 송일병:사상 체질 분류 검사(QSCCⅡ)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1):186-246, 1996.
19.김수범:사상 체질 감별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지적 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20.김종우, 황의완, 이의주:MBTI를 이용한 사상체질의 심리적 특징에 대한 연구, 대한신심스트레스학회지, 7(2), 1999.
21.장세규:사상 체질 분류 검사 평가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22.전겸구, 김교헌,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13(1):114-135, 1994.
23.전겸구,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김교헌: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연구 Ⅱ:이론적 토대 및 실증적 연구, 장동환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1993.
24.조황성, 지상은, 이의주, 홍석철, 고병희, 권건혁, 남봉현, 조동욱:체질 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생화학적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9(2):147-162, 1997.
25.한국행동과학연구소:요인 분석을 통하여 본 캘리포니아 심리 검사(CPI)의 타당화 연구, 행동과학연구, 14(1):1-18, 1981.
26.Allport, G.W.: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Y:Holt, Rinehart & Winston, 1961.
27.Allport, G.W.:Personality: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Y:Holt, Rinehart &Winston, 1937.
28.Allport, G.W.:Personality and social encounter. Boston, MA:Beacon Press, 1960.
29.Allport, G.W.:The person in psychology. Boston, MA:Beacon Press, 1968.
30.Hall, C.S. & Lindzey, G.:Theories of personality. 3rd.(Eds), NY:John Wiley & Sons, 1978.
31.Hjelle, L.A. & Ziegler, D.J.:Personality theories. 2nd ed., NY:McGraw-Hill Book Company, 1981.
32.Myers, I.B.: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1962.